

■ '불꽃처럼...'展 찾은 제자 김영순 씨가 추억하는 최승희

# “스승과 나는 춤사위 몸이 기억 그녀의 발자취 우리 민족유산”



### 장흥출신 최옥삼씨 배경음악 작곡·연주 “최승희·남편 안막 자본주의라며 속칭”

최승희는 또 무대 의상에도 관심이 많아 직접 고무려, 백제, 신라의 의상을 연구했고, 창작 무용의 배경이 되는 이를 나라의 의상도 만들었다고 한다.

또 옥삼류 가야금 산조의 참사자인 장흥 출신 최옥삼과 최승희의 예술적인 관계도 흥미로웠다. 최승희 무용의 배경음악은 대부분 최옥삼이 만들었고, 또 직접 연주를 했다.

“1958년 북송교포 환영 행사로 준비했던 무용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에 최옥삼 선생의 음악이 쓰였고, 최승희 선생의 추천으로 나도 이 공연을 함께 했어요.”

그녀는 최승희의 슬픈 속절 과정도 들려줬다. 지난 1967년 국립무용극장과 조선인민군협주단의 배우와 무용수들이 모여 회의를 했는데, 이 자리가 최승희와 최씨의 남편 안막의 ‘인민재판’이었다는 것이다.

“공산당 선동선전부장인 김창만이 문화성 부장인 안막과 최승희의 사상과 예술이 자본주의적이라고 꾸짖자, 국립무용극장 무용수 오몽희가 일어나 ‘최승희 무대 출연 30주년을 기념해 닭 30마리를 잡아서 줬다’고 증언했어요. 심지어 ‘사도성의 이야기’란 작품에 스님을 너무 많이 등장시켰다는 지적까지도 나왔어요.”

이날 이후 최승희의 외부 활동은 중단됐고, 최씨 부부가 정치범 수용소로 옮겨졌다는 소문이 나돌았다는 것이다. 최승희가 숨진 뒤 30년이 지난 1998년에야 최씨의 조카인 최로사와 최호섭 등이 각각 작곡가와 무용수로 활동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최승희의 춤은 굉장히 현대적이며, 어떤 음악과도 어울립니다. 단순히 과거 인물의 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우리 민족의 유산이기에 최승희 춤을 연구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전시에는 최승희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사진 150여점과 그림 4점,



영상물 등을 선보인다. 또 공연 리플렛, 책, 신문 기사 등 희귀자료와 최승희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최씨가 월북해 안무한 ‘사도성의 이야기’ 등 희귀 영상물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문의 062-613-714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8월 21일까지 시립미술관서 전시

“여섯 살 때 중국 북경에서 최승희 선생의 춤을 본 순간, 저 또한 춤을 추며 살아갈 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선생의 춤은 충격적이었고 아름답더라고요.”

한국 근대무용의 여명을 연 최승희(1911~1969년) 탄생 100주년을 맞아 ‘불꽃처럼 바람처럼, 무희 최승희’전(오는 8월 21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광주시립미술관에 21일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최승희가 월북 후 북에서 키워낸 제자 김영순(73·최승희무용교육원 원장)씨는 이날 관람객들을 위해 ‘내가 본 최승희 선생님’을 주제로 강의를 했다. 그녀는 지난 2001년 탈북 후 남한에 정착해 스승의 춤을 가르치며 살고 있다.

스승과 나는 기억들은 세월 따라 조금씩 희미해졌지만 춤 사위를 통해 전해진 몸의 기억은 또렷했다. 김씨는 어린 시절 중국과 북한에서 관람한 최승희의 공연 모습, 제자가 된 뒤 받은 강의, 함께 공연했던 추억 등을 들려줬다.

북경에서 살았던 그녀는 최승희의 공연을 모두 관람했고, 해방 후 오디션을 통해 종합예술학교 1기 생으로 합격해 최승희의 제자가 됐다.

“우리 춤의 소중함을 강조했고, 춤에 관해서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살풀이는 수양버들 잎이 물가에 떨어지듯 취야 한다’는 선생의 말이 생생합니다.”

## ‘페스티벌 오! 광주’ 초청공연 기대하세요

### 23일부터 ‘보이척’ ‘코리아판타지’ ‘카르마’ 무대에

광주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페스티벌 오! 광주’는 지난 1일 개막 후 다양한 작품을 무대에 올려왔다.

지금까지 놀이패 신명의 ‘일어서는 사람들’, 알수의 ‘인수화풍’, 김미숙씨한국무용단과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의 ‘연의 노래’, 극단 진달래 피네의 ‘몽연’까지 광주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단체들의 공연이 이어졌다.

오는 23일부터는 문화재단이 초청한 외지 단체들의 공연이 펼쳐진다.

22~23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되는 사다리움직임 연구소의 ‘보이척’은 이미 국내외에서 공연돼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헤럴드 앤젤 어워드를 수상했고 영국 BBC 방송 선정 올해의 에든버러 프린지 Top 10에 올랐다.

11명의 배우의 움직임과 오브제로 사용된 11개의 나무 의자, 그리고 피아졸라의 음악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신체를 활용한 작품들을 주로 선보여온 사다리움직임 연구소의 장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공연이다.

27일 오후 7시30분 선보이는 ‘코리아 판타지’는 세계인들에게 한국 전통예술의 화려하고 섬세한 맛을 선사해온 국립무용단의 대표 브랜드공연이다.

한국의 대표 전통춤인 부채춤, 장고춤, 삼고무·오고무 등과 궁중무, 장검무 등 한국춤의 하이라이트를 모아 무대화했다.

이번 페스티벌의 마지막 작품인 더 페트론 컴퍼니의 ‘카르마’(30~31일 오후 6시)는 우아한 선과 슬림이 살아있는 한국무용과 역동적인 동양 무술, 공연의 흐름에 맞춰 동양화가의 사군자 시인이 접목된 난버벌 퍼포먼스다.



‘보이척’

‘신들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사랑과 음모, 부활’이라는 판타지적 요소를 가미, 세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기획된 작품이다.

티켓 가격 2만원, 1만5000원, 1만원. 문의 062-670-7463. /김미은기자 mekim@

## “고래야 놀자” 3D 미술로의 초대

### 23~10월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트리아트展’

광주문화예술회관이 개관 20주년을 맞아 ‘트리아트 특별전’을 개최한다.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광주문예회관 전시관(옛 광주시립미술관)을

트리아트는 극사실주의 작품 위에 투명도가 높은 특수 도료를 덧칠해 얇은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빛의 굴절과 반사, 원근과 음영에 따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각을 일으키는 새로운 미술장르다.

이번 전시에는 반고흐, 마네, 클림트, 밀레, 펠브란트 등 서양 미술 거장들의 원작을 패러디한 작품과 동물을 입체화한 오리지널 회화작



품 등 모두 70여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티켓가격 성인·청소년 1만원, 어린이 8천원이다. 문의 062-525-601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조용한 혁명’ 이상돈씨 광주 온다

### 25일 금남로 가톨릭센터서 ‘저자와의 대화’

촛불 사태에서 4대강 사업까지 MB정권의 무원칙과 무능을 신랄하게 비판해온 ‘조용한 혁명’(부스 펄브)의 저자 이상돈(60·사진)씨가 광주를 찾는다.

전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와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등은 오는 25일 오후 7시 광주시 금남로 가톨릭센터 7층 대강당에서 4대강사업 국민소송단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돈을 초청, 저자와의 대화 마당을 마련했다.

이씨는 이날 행사에서 저서 ‘조용한 혁명’을 중심으로 4대강 사업의 현재와 미래, 한국정치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보수의 시각에서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을 비판해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자’라는 별칭을 얻었다. 문의 062-234-273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국제영화제 자원봉사자 모집

2011광주국제영화제(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기간 함께일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기획·운영팀, 홍보팀, 초청·행정팀, 자원봉사팀, 프로그램팀 등 총 5개팀 8개 분야로 나눠 모집하며 영화에 관심 있는 어떤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등의 실비와 봉사활동 증명서가 발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광주국제영화제 홈페이지(http://www.giff.org)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이메일(volunteer@giff.org)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2차 면접진형을 통해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문의 062-228-9968. /김미은기자 mekim@

www.geumsoojang.com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0년

피로연, 세미나, 가족모임에 모두가 좋아하는 한정식으로 즐기세요.

**계절별미** 30년 전통의 한정식 33,000원부터  
삼계탕, 전복삼계탕, 굴비정식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기본 3인상 이상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사락

moviehelic

무더운 여름 시원한 극장에서 즐거운 영화와 함께 하세요

상당원결 방방--(1번 or 2번)--0번  
☎ 1588 - 7941

항토사랑 영화사랑  
**클롬버스시네마**  
하남점

1관 카2(전체) / 고양이(15세) / 퀵(15세)	1관 트랜스포머3 (12세)
2관 카2 (전체) / 트랜스포머 (12세)	2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3관 퀵 (15세)	3관 고지전 (15세)
4관 고지전 (15세)	4관 고양이-죽음돌보는두개의눈 (15세)
5관 고지전 (15세)	카2 (전체)
6관 트랜스포머3 (12세)	5관 퀵 (15세)
7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6관 퀵 (15세)
8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7관 바니버디 (전체) / 씨니 (15세)
9관 별간모자의전설2 (전체) / 씨니	8관 고지전 (15세)
10관 바니버디(전체) /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9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리뉴얼 오온기념 RB EVENT 500만원 상영의 경품행사	10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달라진 클롬버스상무임을 소개하면 행운의 경품이 방방	

조조 영화한편 어떠세요? /오남최대주장 / www.cinusa.co.kr  
3,000원 저렴하게, 선택순 30분께 이벤트 팝콘 증정

구. 런던역국사거리  
☎ 1544 - 0600

**MEGABOX**

M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최고급관
2관 고지전 (15세)
3관 고양이-죽음돌보는두개의눈(15세)
4관 트랜스포머3 (12세)
5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6관 카2 (전체) / 고지전 (15세)
7관 퀵 (15세)
8관 바니버디(전체) /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9관 고지전 (15세)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 호남주치터워, 황금주치터워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고객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북구보건소 건너편  
☎ 1544-0070

**CINUS**

바니버디 (전체)
1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2관 바니버디 (전체) / 트랜스포머3 (12세)
3관 바니버디(전체) / 고지전(15세) / 퀵 (15세)
4관 헤리포터와죽음의성물2 (전체)
5관 씨니 (15세) / 카2 (전체)
6관 퀵 (15세)
7관 고지전 (15세)

색깔있는 영화한편 \*w월w.cinusa.co.kr  
씨너스전대대D(4K)상영!!